

9월30일 Market Index			
↓ 코스피	3424.60	↓ 코스닥	841.99
	(-6.61)		(-4.72)
↑ 금리 (국고채 9년)	2.582	↑ 환율 (원·달러)	1402.05
	(+0.019)		(+3.35)

형법상 배임죄 폐지된다 110개 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경제형벌 소상공인 옥죄
경미한 위반 전과자 양성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확대
형벌 대신 민사책임 강화 검토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비롯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형벌 제재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큰 골격이다.

민주당 권철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전담반(TF)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경영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분류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정상적 경영 판단·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들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배임죄 역시 이런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며 “제재 필요성이 있더라도 형벌이 필요 없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줄이거나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형벌을 부과해 전과자를 양성하는 제도를 고쳐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 법률과 비교해 형벌이 과도한 경우 형량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률 간 형평성 확보’와 함께 증거 개시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

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체 입법) 시한은 정한 바 없다”며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것까지 논의됐다”고 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면소용’이라는 국민의힘 측 공세와 관련해 “(배임죄 폐지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논의된 것”이라며 “배임죄도 완전 폐지는 아니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부처별 중요시스템 전부 점검”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제
“국가 전산망 혼란 최대한 줄여야
피싱 등 범죄 우려… 예방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마비와 관련해 “문제가 된다 싶거나 점검 필요성이 있다, 중요한 시스템이다, 싶은 건 전부 점검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로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국가 전산망 마비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된다.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른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이중 운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각 부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에 이런 게(이중 운영장치가 없었던 게)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각 부처는 소속과 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각종 시설 시스템이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점검해보면)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제가 취임하자마자 장마에 대비해 배수구, 우수관 관리를 체크해 본 일이 있는데 1년에 2번씩 안 한 게 태반이었다. 규정을 만들어놓고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때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비 피해는 줄여든 측면이 있다. 전부 스크린해 보라”고 주문했다. /서예진 기자 syj@

한국금거래소 시세 라인업			
2025.09.30			
	내가 살 때 (VAT포함)	내가 팔 때 (금방금방 앱 기준)	
순금시세	776,000원	697,000원	
Gold24k-3.75g	2.19% ▲ 17,000	2.44% ▲ 17,000	
18K 금시세	제품시세적용	512,300원	
Gold18k-3.75g		2.44% ▲ 12,500	
14K 금시세	제품시세적용	397,300원	
Gold14k-3.75g		2.44% ▲ 9,700	
백금시세	310,000원	255,000원	
Platinum-3.75g	-1.29% ▼ -4,000	-1.18% ▼ -3,000 (자사백금바기준)	
	10,180원	7,440원	

치솟는 금값

미 정부 섯다운과 약달러 영향에 금 1온스(28.35g) 당 가격이 3800달러 선을 넘어선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종로본점 전광판에 금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소비·투자 부진… 경기회복 제동

소비쿠폰에도 소매판매 ↓
8월 산업생산 제자리 걸음

소비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지난8월 소매판매가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서고 설비·건설 투자도 부진을 거듭했다. 6~7월 증가 흐름을 보였던 산업생산도 보합세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6월 1.6%, 7월 0.3%로 두 달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가 8월 들어 주춤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2.4%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이 0.7% 감소했고, 건설업(-6.1%)과 공공행정(-1.1%) 부문도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6% 증가했다. 제조업 출하는 내수(2.5%)와 수출(0.8%)이 모두 늘면서 1.7% 증가했다. 재고/출하 비율은 100.7%로 전월 대비 1.1%포인트(p) 하락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7%로 전월 대비 2.2%p 상승했다.

7월 하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지만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4월(-1.0%) 이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8월 소매판매는전월 대비 2.4% 감소하면서 지난해 2월(3.5%)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1.0%) 판매가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9%)와 가전제품·통신기기 등 내구재(-1.6%) 판매가 감소했다.

백화점(-0.5%), 대형마트(-11.4%), 면세점(-0.5%), 슈퍼마켓·잡화점(-4.8%), 편의점(-2.1%) 전문소매점(-3.2%), 무점포소매(-1.7%)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승용차·연료소매점(2.8%)은 증가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7월) 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 사업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있었고, 8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해 가전제품(-13.8%) 판매가 줄었다. 7월에 갤럭시 Z 폴립·폴드7 등 신제품 출시가 있어 8월에 통신기기(-13.6%) 판매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7월(7.6%) 증가로 전환했던 설비투자는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기계류(1.0%) 투자가 늘었지만 운송장비(6.0%)가 크게 줄면서 전월 대비 1.1% 줄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올인’서 ‘조율’로… 車업계, 전기차 브레이크

폭스바겐, 獨 공장 전기차 생산 중단
현대차 울산 1공장 2라인 휴업 지속
내연기관 전략 수정, 시장반전 모색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성장 정책에 맞춰 전환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투자 계획과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높였던 독일과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공장의 물량을 조정하고 일시 가동 중단을 진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세계 2

위 완성차 기업 폭스바겐은 10월 6일부터 일주일간 글로벌 전기차 수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작센 주 츠비카우 공장의 전기차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곳은 아우디 Q4 e-트론을 생산하는 곳으로 미국과 독일의 전기차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스바겐 ID.4·ID.7을 생산하는 니더작센주 엠덴 공장도 일부 라인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현대차도 전기차 생산량 조절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는 29, 30일 울산 1공장 2라인의 생산을 중단했다. 1공장 2라인

은 현대차 준중형 전기 스포츠실용차(SUV) 아이오닉 5 등을 생산하는 라인이다. 이번 휴업으로 1공장 2라인은 올해에만 7번째 휴업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국내 전기차 수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1공장 2라인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9월 이후에도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 속도 조절을 이어갈 수 있다. 국내 전기차 수요 정책과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 확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한줄뉴스



▲APEC 때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 모두 경주서 열릴 가능성도
▲한덕수 첫 재판 “계엄, 국가발전 차원선 받아들이기 어려워” /사진 뉴시스

▲통일교 前본부장 보석심문… “회유·증거인멸 우려”vs“위법증거”
▲법원, ‘불법구속’ 주장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 재판 재개

▲정은경 “2071년까지 국민연금 안정적 운영 가능… 추가 조치는 필요”
▲균형발전 예산 편성 때 지방시대위 의견 반영돼야… 예산사전조정권 강화